

‘정원 열풍 주도’ 순천시, 대한민국 지방자치 대표 도시 ‘우뚝’

지방자치 혁신대상 최초 2관왕...관광·도시혁신 선도 정원·생태·문화콘텐츠 융합 ‘지속가능 발전 모델’ 제시

순천시가 정원과 생태, 문화콘텐츠 산업을 융합한 차별화된 지방자치 기준을 제시해 대한민국 지방자치 대표 도시로서 위상을 높였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지자체 유일 종합대상·관광대상 2관왕을 차지했으며 관광·도시·보건혁신 3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순천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정원과 생태,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축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국민 5명 중 1명인 1천만명이 방문한 순천만국가정원은 에버랜드를

제치고 국내 관광지 1위에 등극했다. 500여개가 넘는 지자체·기관이 벤치마킹을 위해 순천을 방문했고 전국에 정원 열풍을 일으켰다.

올해는 정원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새롭게 바뀐 국가정원을 선보이며 정원 흥행을 이어갔다. 4월에는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콘셉트로, 스페이스허브, 스페이스브릿지 등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웹툰 ‘유미의 세포들’, EBS 애니메이션 ‘두다다쿵’ 등의 캐릭터가 결합된 정원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3대가 즐길 수 있도록 바뀐 국가정원은 8개월간 400만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았고 수익금 110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생태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관광이 도시 경제



순천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난 8월 그린아일랜드에서 진행된 ‘캠핑으로 그린 아일랜드’ 행사에 참여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순천시 제공>

를 견인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지난해 정원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선사했던 ‘가든스테이’를 일과 휴식, 관광이 동시에 가능한 ‘정원워케이션’으로 탈바꿈

시켜 차별화된 콘텐츠로 평가받았다. 도시혁신 분야에서는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등 도심 재생 프로젝트로 새로운 도심 공간 문화를 만

들어냈으며, 순천만과 원도심을 잇는 뱃길 조성으로 생태축을 연결하는 물의 도시로 미래 전략을 수립했다. 순천시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

해 에나·웹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문화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생태축 조성 및 환경 친화적 도시 개선을 통해 생태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혁신에서는 연중무휴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 AI 애플리케이션 도입, 심뇌혈관 질환센터 확충 등 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하며, 기초 지자체 최초로 필수의료지원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살려낸 위대한 도시로 평가받으며, 지방 도시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한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지난달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 도시로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

장성 백양사 100만명 방문...전남 명소 자리매김

주차장 무료화 주요...‘윈터랜드 프로젝트’ 상승효과 기대

전남의 관광 장성군이 백양사 방문객 100만명을 달성하며 전남 가을 관광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8일 장성군에 따르면 북하면 소재 백양사와 백암산이 국립공원 지정 이후 최초로 올 한해 100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천년고찰 백양사와 백암산이 있는 내장산국립공원의 올해 누적 방문객 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107만명을 넘겼다. 상승세는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국립공원공단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70만여명 방문객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지난해부터 88만여명으로 올라섰다.

올해는 국립공원에 지정된 1971년 이후 처음으로 탐방객 100만명을 넘었다. 지난 6월 장성군과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가 업무협약을 통해 주차장 이용료를 무료화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에 이어 지난해 전국 주요사찰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주차장 이용료는 남아 있어 승용차 기준 대당 5천원을 내야 했다. 이에 장성군은 국립공원 측과 협의를 거쳐 내장산국립공원 백암 남창지구 주차장 3개소를 임대하기로 하고, 6월부터

터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6월부터 11월 까지 방문객 수는 약 70만명으로 전체 방문객의 절반이 넘는 65%를 차지했다.

장성 백양사가 ‘전남 최고 가을 여행지’로 자리매김한 부분은 인터넷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1월 2주차 랭키파이 전남 선호여행지 순위 결과, 장성 백양사는 2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포인트로 압도적 1위



장성군 북하면 소재 백양사와 백암산이 국립공원 지정 이후 최초로 100만 방문객을 기록했다. 가을 단풍으로 물든 백양사 전경. <장성군 제공>

에 올랐다. 여기에 지난해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장성 윈터랜드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되면서 북하면 장성호관광지 일원에 관광특화공간이 조성되면 동반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반세기 만에 100만 방문을 넘어선 백양사와 백암산이 장성관광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상승세를 이어가 관광 분야의 비약적 성장을 이끌고, ‘1천만 관광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장성=김문태 기자

여수 두번째 명예도로 ‘윤형숙열사’ 지정

공적비 일원...여성 독립운동가 윤형숙 열사 숭고한 뜻 기려

여수시는 8일 “화양면 창무리에 소재한 윤형숙 열사 공적비를 지나는 도로에 명예도로명 ‘윤형숙열사로(위치 사진)’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4월 ‘주재년열사길’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지난 8월 박영평 시의원의 제안을 시에서 적극 수용해 주민 의견수렴 과정과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명예도로명은 법정도로명과 다르게 실제 주소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지역 사회 헌신도와 공익성 등을 따져 법정 도로명과 병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도로를 말한다.

사용 기간은 5년이며, 기한 만료 30일 전에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역 여성 독립운동가 열녀 윤형숙 열사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윤형숙열사로를 지날 때마다 숭고한 애국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



여수시 창무리에 소재한 윤형숙 열사 공적비 일원...여성 독립운동가 윤형숙 열사 숭고한 뜻 기려. <여수=김진선기자>

구례군 주민자치회 출범 ‘시동’ 구례읍·마산면서 설명회 개최

구례군은 “최근 구례읍과 마산면에서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민자치회 설명회는 2025년 구례읍과 마산면이 선정됨에 따라 관내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에 대해 널리 알리고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위촉하며, 주로 읍·면 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심의, 강사 선임, 평생 교육 의견 제출 등 행정 자문 역할을 한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표 기구로,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군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기자



곡성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 민관산학 뭉쳤다

주요 사업 현황 공유·내년도 기금 활용 전략 마련 논의

곡성군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기금 활용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산학과 머리를 맞댔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대동마루에서 ‘지방소멸대응 추진체계 제5차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회의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곡성군의회 의장·부의장, 민관산학 협력단 실무협의회 위원, 기금사업 부서장 등 35명이 참석해 인구감소 대응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

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전략회의의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실질적 정책 추진과 기금사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피드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곡성군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 72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정주민·이주민 활성화 사업 ‘곡성활명수’(9억원) ▲청년농부 스마트팜 캠퍼스 운영

(37억원)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사업(26억원)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초기금 352억원, 광역기금 120억원 등 총 472억원을 확보해 8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에는 기금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단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2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상래 군수는 “지방소멸대응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넘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머물고 살고 싶은 희망찬 곡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기자

담양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사업’ 참여 모집

12일까지...다양한 실무 경험 통해 자립 도움·경쟁력 ↑

담양군은 8일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2025년 겨울방학 중 대학생 인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다양한 직장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담양군은 8일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2025년 겨울방학 중 대학생 인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다양한 직장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담양군은 8일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2025년 겨울방학 중 대학생 인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기기자

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신청은 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1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담양군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학력, 자격증, 어학 점수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1차 서류심사 후 면접을 거쳐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된 인원은 1월2일부터 5주간 담양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담양군 일자리정책팀 관계자는 “공공행정 분야 실무지식 습득 및 대민행정 체험 등 다양한 근무 업무 경험을 통해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취업을 대비해 부족한 부분, 적성 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기기자

고흥군, 겨울철 농작물 기습 한파 대비 ‘총력’

과수 보온자재·난방시설 등 사전 점검...냉·동해 피해 예방

고흥군이 겨울철 농업 재해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재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총 3개 반을 편성,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상황 전파 및 피해 상황 파악, 응급 복구 등 단계별 행동 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최근 3년간 겨울철 재해가 발생한 시설하우스 21개소를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보수 및 자동화 시설 작동 확인 ▲배수로 정비 및 제설 장비 확

보 ▲보온시설 정비 ▲내재해형 규격 시설 확인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해 겨울철 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작물별 관리 요령을 농가에 홍보하는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마늘과 양파는 배수로를 점검, 유지는 필요로 피해 예방을 위한 등 작물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흥=최봉환기자